

# 미얀마 민주화 · 인권운동 상황보고

2014년도 민변 아시아인권팀 미얀마 방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9월

# 1. 서론

## 1. 문제의식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2014. 2. 19. ‘2008 미얀마 헌법’ 개정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4. 7. 25.부터 8. 1.까지 미얀마 방문을 계획하였다. 특히 앞선 국제 심포지엄에서 다룬 1)2008 미얀마 헌법 개정의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지에서 헌법 개정 이슈를 심도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2)미얀마 민주화 운동 단체의 협조를 통해 현재 미얀마 정세 및 민주화 운동 전개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할 기회가 필요하였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3) 소수민족 및 종교 갈등에 대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 2. 방문의 목적, 방법

아시아인권팀의 2014. 8. 미얀마 방문은 위 3가지 큰 문제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향후 활동계획 수립의 사전조사 성격을 띤다. 2008 헌법 개정 진행과정은 헌법검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주의전국연맹<sup>1)</sup>(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하 ‘NLD’)소속 국회의원 2명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헌법 개정 이슈에 대해서는 Myanmar Lawyer's Network 소속 회원들과 ‘민주주의, 인권과 사회정의’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한다. 또한 미얀마 정세 및 민주화 운동 전개과정은 우원틴 재단, 88세대를 대표하는 지도자 민꼬나잉과의 간담회를, 소수민족 및 종교갈등에 관하여는 소수민족 대표자와의 간담회 및 메이크틸라 지역의 피해자 면담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 3. 방문 일정

일차	날짜	시간	활동세부내용
1일차	25일	저녁/밤	선발대 + 후발대 도착

1) 현재 NLD는 ‘민족민주동맹’으로 불리나, ‘National’의 의미를 ‘민족’이라는 의미보다는 ‘전국’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민주주의전국연맹’으로 일컫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민족민주동맹’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민주주의전국연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2일차	26일	전일	민주주의, 인권, 사회정의에 관한 공동 워크숍 : 민변 및 미얀마변호사네트워크 공동주최
3일차	27일	오전 오후 오후 저녁	간담회 : 우원틴 재단 간담회 : 소수민족 대표자 간담회 법률상담 : 마스터스포츠 체불 임금 건 상담 간담회(만찬) : 만다잉아카데미 소속 변호사 초청
4일차	28일	오전 오전 저녁	간담회 : 88세대 학생 단체 및 민코나잉 간담회 : 따비에 간담회(만찬) : 헌법수정검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NLD)
5일차	29일	오전 오후 오후	간담회 : 지역변호사 및 무슬림(지역사회 종교갈등 활동가)등 간담회 : 종교 갈등의 희생자 면담 방문 : 불교도/이슬람 갈등으로 발생한 난민캠프
6일차	30일	오전 오후	간담회 : 산주 지역 NLD 지부 간담회 : 청년활동가들(청년 네트워크) 면담
7일차	31일	전일	휴식 및 이동
8일차	8/1일	오전 오후 저녁	간담회 : 새사회민주연대 면담 미얀마변호사네트워크+우원틴재단 점심 만찬 출국

## II. 헌법 개정 이슈 및 진행상황

### 1. 헌법 개정 진행상황

#### 가. 헌법 개정 배경

미얀마는 아웅 산 장군의 주도하여 1947년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냈으나, 이후 정치적 혼란기를 겪게 되고 1962. 3.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네 윈(Ne Win)정권이 수립된다. 네 윈 정권은 26년간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였는데, 이 기간 미얀마의 경제적 빈곤과 군부의 강압적인 통치는 1988. 8. 8. 양곤의 대학생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반군부 민중항쟁인 8888항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네 윈 정권의 퇴진을 이끌어냈으나 신군부가 총선 결과에 불복하고 의회 소집을 거부함으로써 민주정부 수립은 실패하였다. 많은 시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다시 군부독재를 경험하게 되고 2007년 ‘샤프란 혁명’을 거치며 군부

정권은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명목으로 헌법 개정예 착수하여 이후 2008 미얀마 헌법으로 개정되게 된다.

## 나. 2008 미얀마 헌법의 문제점

헌법 개정은 정권의 민간이양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실제 내용은 군부 독재를 제도화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2014. 2. 19. ‘2008 미얀마 헌법’ 개정예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08 미얀마 헌법의 문제점을 통치구조와 기본권 2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 1) 통치구조의 관점<sup>2)</sup>

먼저 통치구조의 관점에서 2008 미얀마 헌법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군 최고사령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이다. 미얀마 헌법상 군 최고사령관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하여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군 최고사령관은 연방의회(상·하원 포함), 도의회, 주의회 의원 정수의 1/4을 지명할 수 있고, 대통령이 세 개 부처(국방부, 내무부, 국경부)의 장차관을 임명할 때 그 후보자를 군 최고사령관이 결정하며, 대통령이 위 세 개 부처 이외의 부처에 군인을 장차관으로 임명하려면 군 최고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군 최고사령관의 막강한 권한은 헌법개정조항과 결합하여 현실적으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미얀마 헌법에 의하면,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의회 의원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연방의회 의원 정원의 1/4에 해당하는 의원을 군 최고사령관이 지명하므로, 여야간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 최고사령관의 의원 지명 권한은 현실적으로 민주화에 장벽이 된다.

미얀마 헌법상 미얀마 군의 통수권자는 군 최고사령관이다. 군 통수권은 권력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미얀마 헌법이 국민이 주권자임을 천명한 이상, 군 통수권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군을 국민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 비상사태 및 국가비상사태에서 군 최고사령관의 권한도 비대하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이 모두 군 최고사령관에게 귀속되는데,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국가기관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군 최고사령관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비상사태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때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와 제한의 정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기간 동안 군 최고사령관의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통제하고 내용지

2) 천윤석,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2008 미얀마 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료집, 2014. 2.

역.절차를 정하여 한정된 권한만을 군 최고사령관에게 수여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선거제도 역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미얀마 헌법은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하였는데,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미얀마 헌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통령 피선거권이다. 미얀마 헌법은 대통령 피선거권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본인·부모·배우자·자녀·자녀의 배우자가 외국에 종속되거나 외국 국적을 가져서는 아니 되며, 외국 국적에 따른 권리와 특권을 향유할 자격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 이 규정은 아웅 산 수 치(Aung San Suu Kyi)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얀마 헌법은 정당의 실질적인 활동에 관하여 4가지 금지사항을 규정하며, 정당이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 등록을 받는 기관이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와 헌법질서 수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당 등록 취소와 위헌정당 해산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 헌법은 정당 등록을 받는 기관이 정당의 실질적인 활동을 심사하여 정당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 등록 취소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 2) 기본권의 관점<sup>3)</sup>

2008 미얀마 헌법은 편제상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은 채 기본권 조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국 헌법의 기본권 조항은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상당한 개방성을 지니고 있는 데에 비해 미얀마 헌법은 기본권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일반적인 헌법의 개별 기본권 조항은 포괄적으로 기술하거나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고 그 우산아래 세부적 권리를 언급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사유와 조건을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미얀마 헌법 기본권 분야의 몇몇 조항은 연관성 있는 조항들을 뚜렷한 원칙 없이 개별조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점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해친다.

이러한 편제상의 문제점은 근원적인 기본권의 누락을 야기하는데, 2008 미얀마 헌법에는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 처우 및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미란다

3) 김기남. 인권의 관점에서 본 미얀마 2008년 헌법 기본권 분야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2014. 2.

원칙,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신속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근원적인 국민·정치적 권리의 일부가 누락되었고, 일할 권리, 건강한 근로조건, 노동3권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누락되었다.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미얀마 헌법은 국가가 정한 보건정책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건강보호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사회적 보호에 대한 포괄적이고 충분한 권리 보호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기본권 조항이 충돌되는 문제점도 발견되는데, 미얀마 헌법은 평등권과 인종, 출생, 종교, 직위, 지위, 문화, 성 그리고 재산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직자의 투표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군 최고사령관에게 의회의석의 25%를 지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평등원칙에 반하는 내용들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미얀마 헌법상 피선거권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침해되고 있는데, 피선거권자는 군인이라는 특정 직업 종사자이거나 미얀마 영토 내에서 태어난 양부모 또는 미얀마 국적보유자인 양부모 슬하에 태어난 미얀마 국민, 배우자가 외국 사람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미얀마 헌법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데, 일부 기본권 조항들은 현행 법령에 따라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거나 ‘국가안보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입법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not contrary to the laws)’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 검열, 정당 활동의 제한 등에 악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군 최고사령관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권리들을 제약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다. 소결

현 미얀마 헌법은 산재한 문제 조항들이 있음에도 개헌에 이르는 과정을 교묘하게 저지하는 규정을 두었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개헌이 아닌 제헌’을 해야 할 형국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08 미얀마 헌법 개정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현 떼인 세인 정권은 헌법 개정을 위하여 야당인 NLD 국회의원을 포함한 헌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헌법검토 과정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앞서와 같은 여러 개정 이슈 중 어떤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며,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 및 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헌법 개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제연대위원회 산하 아시아인권팀은 법률가 단체인 Myanmar Lawyer’s Network와 워크숍,

NLD 소속 헌법검토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현지에서 진행하였다.

## 2. 현지 방문

### 가. Myanmar Lawyer's Network 워크숍 내용

Myanmar Lawyer's Network(이하 'MLN')는 정치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헌법 개정운동 등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률가 단체이다. 민변 아시아인 권팀은 2014. 7. 26. 양곤에서 MLN 소속 회원들과 '민주주의, 인권, 사회정의(Democracy,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라는 제목으로 헌법 개정 및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중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아시아인 권팀은 앞선 사전조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2008 미얀마 헌법에 대한 발제를 마쳤다. 이어 MLN은 우 떼인 탄 우(U Thein Than Oo), 우 아웅 떼인(U Aung Thein), 두 발제자가 미얀마 헌법에 대한 문제점, 현 정세에 대한 발제를 하였다. 먼저 우 떼인 탄 우(U Thein Than Oo)는 'Democracy in Myanmar & Methodology for Amendment of 2008 Constitution' 라는 주제의 발제가 있었다. 우 떼인 탄 우는 1874년 학생운동으로 투옥생활을 한 법률가로서 2008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2008 미얀마 헌법에 관하여 정권은 국민의 92%의 지지로 개정된 헌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헌법 개정 전 사이클론 나르기스(Cyclone Nargis)로 인한 큰 피해가 있었고 이 틈을 타 군부가 독단적으로 야권의 거부를 무시한 채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한 것이다. 2008 미얀마 헌법은 군부 독재의 장기집권을 보장하는 법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 2가지는 미얀마 헌법 제418조와 제436조이다. 헌법 제418조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군 최고사령관에게 이전되며,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날로부터 입법부의 기능은 유예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국가의 실질적 통치자가 모두 군인이거나 군인 출신인 현 상황에서 민주항쟁 또는 혁명을 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헌법 제436조는 헌법 개정 시 연방의회 의원 75%의 지지에 따른 사전 승인과 국민 50%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다. 현 국회는 전체 의석의 25%를 군 최고사령관이 지명하고, 실제 군 출신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 75%의 지지를 받는 것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현 미얀마 헌법으로는 헌법 개정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개헌 없이 NLD의 아웅 산 수 치 의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 제436조의 개정을 위해

아웅 산 수 치와 NLD가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며, 이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NLD와 아웅 산 수치는 헌법 개정을 위해 대화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으며, 꾸준한 소수민족 단위 및 지역 단위 강연을 하며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있다. 이를 위해 미얀마 평화 센터(Myanmar Peace Centre)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8미얀마 헌법규정 중 제418조와 제436조를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 뽑고 이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우 아웅 떼인(U Aung Thein)은 ‘Human Rights in Myanmar & Legitimacy on Amendment of 2008 Constitution’ 이라는 주제의 발제가 이어졌다. 우 아웅 떼인 역시 2008 미얀마 헌법이 현 군부 독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같았고, 이와 같이 문제들을 설명하였다.

“1988년 8888혁명 이후 군사정권은 국민들에게 민주사회 건설을 만들자 제안하였으나 이는 허울뿐이었다. 1990년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첫 선거에서 NLD가 압승을 하였으나 군부는 정권이양을 반대하며 NLD를 탄압하였으며, 이후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1990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회의’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군부는 겉으로는 민주적인 방식의 헌법 개정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조직(서아시)을 만들어 지원을 하면서 ‘국민 대 국민’의 대립각 이미지를 만들었다.

한국과 미얀마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한국의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반면 미얀마는 여전히 군인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얀마의 제일 큰 문제는 군인과 군대가 정권을 계속 이용하고 민간에 이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1992년 정부는 무력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았고, 50년이 지난 후 이렇게 무장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제 헌법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헌법이 군부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그 개정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절실하고, 이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그는 헌법을 통하여 정권을 영속하려는 군부정권을 꼬집으며, 헌법 개정이 미얀마 민주화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는 헌법개정 운동들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시민들로 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군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아웅 산 수 치 여사는 헌법개정 논의를 위해 테인 세인 대통령, 투라 슈웨 만 의회 의장 및 군총사령관에 4차회담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NLD와 시민사 단체들은 시민들의 헌법 개정에 대한 열망을 군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천만인



서명운동을 이어갔고, 이후 8월 중순 미얀마 야권이 약 500만 명의 지지 서명이 담긴 개헌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 나. 국회 헌법검토위원회 NLD 소속 국회의원 면담 내용

아시아인권팀은 2014.7.28.현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현재 NLD 소속 국회의원이자 헌법검토위원회 위원 우 윈 민(U Win Myint), 우 아웅 키 닝(U Aung Kyi Nyunt)과 약식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위원회 논의 내용은 제3자에게 발설이 금지되어 있어 현재 위원회 안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다만, 두 의원 모두 대통령 피선거권, 군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주요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헌법검토위원회 검토를 마친 개정안이 국회의원 75%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서 아웅 산 수 치를 비롯한 NLD 소속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 Ⅲ. 미얀마 정세 이슈

#### 1. 사전조사 내용

##### 가. 미얀마 역사

영국은 1885년 미얀마를 점령한 이후 영국의 한 주로 편입시켜 식민 지배 하였고, 미얀마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에 영국 식민지배 시기 미얀마 민족주의 운동은 개종에 반대하는 불교가 주도하였고,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은 1930년대 아웅 산(Aung San)이 주도하는 미얀마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아웅 산은 일본군과 함께 미얀마에서 영국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영국군 철수 후 일본은 영국보다 더욱 심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등 제2의 식민지배가 이어졌다. 이에 아웅 산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에 따라 영국과 연대하여 일본군을 미얀마에서 철수시켰고, 미얀마의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에 합의 하였다. 이에 따라 미얀마는 1947. 4.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아웅 산이 1947. 7. 각료회의 도중 무장 괴한에 암살

을 당하고, 우 누(U Nu)를 초대 수상으로 1948. 1. 4. 독립을 선언한다. 이후 우 누는 불교와 사회주의의 결합을 통해 미얀마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연이은 정책실패로 정치적 혼란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틈을 타 네 윈(Ne Win)이 1962. 3. 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며 26년간 일당독재체제의 독재를 하게 된다. 네 윈 집권 시기 미얀마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들을(1967. 8. 쌀과 생필품 부족을 이유로 발생, 1974. 5. 미얀마 중부 차욱 지역의 근로자들이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발생, 1975. 6. 노동자와 학생들이 정권에 반대하여 발생) 무력으로 진압하여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마침내 1988. 8. 8. 200,000명의 학생, 시민들이 군집하여 888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네 윈 정권은 퇴진한다.

미얀마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네 윈 퇴진 이후 쏘 마웅(Saw Maung)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되었고, 쏘 마웅이 설립한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가 다당제 총선을 수용하여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신군부는 NLD의 압승으로 귀결된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의회 소집을 거부하며 새로운 군부독재체제를 구축하였고, 신군부 인사인 탄 슈웨(Than Shwe)에 이어 떼인 세인(Thein Sein)이 대통령이 되면서 현재까지 군부독재는 지속되고 있다.

#### 나. 미얀마 민주화 · 사회운동 및 단체

한국과 미얀마는 군사독재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역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많은 시민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면 미얀마는 여전히 독재정권 하에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민주화운동은 8888 혁명, 샬프란 혁명으로 대표되는 과거가 아닌, 현재까지 지속되는 삶이다. 군부독재 하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자 혹은 조력자를 고문하고, 감옥에 보내는 등 시민을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방법과 양상은 한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미얀마는 소수민족 갈등, 종교 분쟁, 산업화와 맞물려 정세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소수민족 간의 갈등, 종교 분쟁을 조장하여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시민들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농민들이 경작하는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 하는 등 일반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자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을 토대로 아시아인권팀은 현지에서 한타와디 우 윈 틴 재단(Hanthawady U Win Tin Foundation, 이하 ‘우 윈 틴 재단’), 민 꼬 나잉(Min Ko Naing) 및 샨주(州) 청년 네트워크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더불어 앞서 언급한 MLN 워크숍의 중 미얀마 정세와 관련하여 나눈 내용을 함께 후

술한다.

## 2. 현지 방문

### 가. 우 윈 틴 재단 간담회

#### 1) 우 윈 틴 재단

우 윈 틴 재단은 미얀마의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19년간 구금됐다가 80세가 된 2008년 9월 풀려난 미얀마의 최장기 양심수 우 윈 틴(U Win Tin)이 설립한 재단이다. 우 윈 틴 재단은 양심수, 정치범, 고문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출소 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지원하는 미얀마 NGO단체이며, 최근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진실의 힘<sup>4)</sup>이 수여한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 2) 간담회 내용

아시아인권팀은 2014. 7. 27. 우 윈 틴 재단과 양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우 윈 틴 재단은 양심수, 정치범, 고문 피해자들 이외에도 양심에 따라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화가들에 대한 생활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이에 간담회 자리에는 88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과거 8888 혁명의 주역 우 윈 틴 재단의 자문위원 4인, 현 활동가 및 우 윈 틴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양심수와 예술인들이 참석하였다.

우 윈 틴 재단의 현 대표 우 키 아웅(U Kyaw Aung)은 먼저 진실의 힘으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한 것과 한국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에 큰 감사함을 표하였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고, 현재 우 윈 틴 재단의 규정, 법 관련 자문을 하고 있는 우 아웅 떼인(U Aung Thein)의 주재 하에 간담회를 하였다. 우 윈 틴 재단의 고문부터 일반회원까지 모든 회원들은 민주화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사람이며, 지금 미얀마 내부의 가장 큰 정세 이슈로 2008 미얀마 헌법의 개정을 꼽았다.

“2008 미얀마 헌법은 군부독재를 인정하는 법이며, 개정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국회에서 NLD 및 민주화 세력의 의견을 수렴할지가 미지수이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지금 미얀마의 상황은 불법적인 인권 침해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데, 법치사회를 만들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일은 무엇보다 헌법 개정이다.

---

4) 진실의 힘은 과거 군부정권 시절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간첩으로 몰렸다가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한 사람들이 2009년 국가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출연해 만든 재단이다.

또 다른 미얀마 정세 이슈는 정치범에 대한 현 정권의 태도이다. 떼인 세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에 부담을 느껴 정치범을 석방하겠다는 공약을 하였고, 실제로 그 말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범들을 풀어주는 동시에 더 많은 수의 정치범들을 잡아가고,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 윈 틴 재단은 출소한 정치범 수감자들에게 생활지원과 심리치료를 해왔고,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아이들 교육지원까지 해오고 있다. 지금 우 윈 틴 재단은 국제시민들의 도움과 지원, 더 나아가 한국 시민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민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 윈 틴 재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라며 한국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였다.

## 나. 88세대 학생 지도자 민 꼬 나잉 간담회

### 1) 민 꼬 나잉(Min Ko Naing)과 88세대 학생(88 Generation Students)

민 꼬 나잉(Min Ko Naing)은 미얀마학생회연합(ABFSU)을 조직한 양곤문리대학 학생운동가로서 8888 혁명이 일어난 1988년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인물 중 한명으로 UN 인권상, 2009 광주인권상을 수상한바 있다. 8888 혁명 당시, 1988년 8월로 접어들면서 100만 여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때 군사정부의 무차별적인 총질로 시민 3,000여명이 학살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때 군인들에 쫓긴 청년 · 학생 1만 여명이 주변국인 태국, 중국, 인도 국경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도 민 꼬 나잉은 미얀마에 남아 미얀마학생회연합을 재건하였다. 지하조직을 움직이던 민 꼬 나잉은 1989년 3월 체포당해 3년 동안 불법감금을 당한 뒤 군사법정에서 15년 형을 선고받고 악명 높은 인세인형무소 독방에 갇혔다.

이후 민 꼬 나잉은 16년의 감옥살이 끝에 2004. 11.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고, 2005. 9. ‘88세대 학생(88 Generation Students)’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국제사회의 도움만을 갈구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현대사의 중요한 인물이다. 민 꼬 나잉은 정치범 석방운동을 벌이며 2006년 9월 다시 감옥에 갇힌 후 2007년 1월 풀려나 동지 400여명을 이끌고 2007. 8. 19. 양곤의 도심으로 향했고, 8888항쟁 뒤 19년 만에 일어난 샤프란 혁명을 이끌어내며 미얀마 민주투쟁사에 중대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시민들로부터 ‘민 꼬 나잉은 미얀마 현대사가 내린 선물’로 불리는 민 꼬 나잉은 ‘나는 죽어 없어질지라도 수많은 민 꼬 나잉들이 나타나 뒤를 이을 것이다.’ 라며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을 이야기하였다.

### 2) 간담회 내용

아시아인권팀은 2014. 7. 28. 시민단체 88세대 학생 사무실에서 민 꼬 나잉과 그가 설립한 ‘88세대 학생’의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그는 미얀마 현 정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88세대 학생은 정당이 아닌 사회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 미얀마의 일반 시민들은 정치운동은 정당의 몫이며, 사회단체는 정치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 사회단체 형태로 정치운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구성원들도 정당의 당원으로 일하는 것에 비해서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안은 정당처럼 당원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는 현실이라 원하는 만큼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현재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2가지인데, 국내의 평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한국과 미얀마의 다른 점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그 중 미얀마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다른 점이다. 내전에 참여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은 협상을 통하여 내전을 종결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다. 내전이 지속되는 한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것도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1990년 총선거 당시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여당은 야당의 국회의원을 감옥에 보냈다. 즉, 국민의 선거로 출마된 민주인사들을 감옥에 보낼 법, 근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여당이 무장투쟁을 하는 자들과 협상을 하여 감옥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석방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민주주의가 바로서지 않으면 힘을 가진 자들이 일방적으로 국가를 지배한다는 단적인 예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법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 미얀마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현재 찾아볼 수 없는데, 미얀마의 재판은 2가지이다. 하나는 판사들이 부정부패를 통해 판결을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압박을 받아 판결을 하는 것이다. 지금 ‘88세대 학생’이 하는 일은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가진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88세대 학생’의 이러한 활동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 내부의 평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는 인사들을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주요인사 자체를 탄압했다면 지금은 주변인물, 지인들, 조력자를 탄압하고 있다. ‘88세대 학생’ 조직을 예로 들면 조직 자체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88세대 학생’의 지역본부, 학생본부 등 하부 조직이 운영될 수 없게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크게 자랄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외부적으로 정부가 현 조직 자체를 탄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민주화조직을 탄압하지 않았다고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88세대 학생’ 지역지도자가 체포되었는데 그 죄명이 절도죄였다. 즉, 정치와 관련된 사람을 체포할 때 정치와 관련된 범죄가 아닌 이미지가 좋지 않은 범죄를 들면 사람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정부는 이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현 미얀마 상황에서 군부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미얀마 시민의 힘이다. 미얀마 시민의 힘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얀마 전체의 민주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지역의 자치권이다. 중국적으로 이 둘이 모두 하나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는 이 두 힘인 소수민족과 시민사회 사이 연대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이며, 연대를 통하여 이를 이뤄낸 이후에 국회, 정부, 군대에 대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88세대 학생'은 정치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 세력에 분열이 일어났다. 민 꼬 나잉은 민주화 이후 '88세대 학생' 단체의 비전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현재는 민주화 투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투쟁을 한다면 젊은 세대가 민주화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아직 민주화를 이룩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민주화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부독재 이후 이상적인 정치 상황도 시민들과 함께 조금씩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을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이다. 민 꼬 나잉이 그리는 미래상은 민주적인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이다."

그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미얀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지금 한국의 문화가 미얀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치적으로도 한국의 성숙한 시민사회 모습이 미얀마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 다. 산주(궈) 청년 네트워크 간담회

##### 1) 산주(궈) 청년 네트워크

아시아인권팀은 2014. 7. 29. 산주(궈) 따웅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모임 '청년 네트워크'의 소속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청년네트워크는 노동, 평화, 환경 인권 등 각기 다른 인권 이슈에 관심이 있는 16개의 단체와 속한 네트워크이다. 16개 단체는 NGO형태로 각 청년활동가들의 봉사료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가들의 나이는 17-35세 이다. 16개 단체가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단일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하며 서로의 활동을 지지해주고 있다. 다음 달 초에는 친 주(궈)에 있는 미얀마 청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청년 네트워크는 만들어진지 되지 않아 서로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지만, 지금 미얀마에서 청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들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청년 네트워크는 국제 연대를 하기 위한 연대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간담회에는 1)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발 사업을 조사 · 감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활동을 하는 쉐리 단체, 2)토지몰수를 당한 농민들이 다시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출간활동을 하는 베포 단체, 3)소수민족 피해자들을 돕고, 토지몰수를 감시하는 농민위원회 농민인권운동단체, 4)차별을 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고 젠더, 여성인권에 대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흑봉 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 2) 간담회 내용

각 단체에 대한 개별질의와 공통질의가 이어졌고, 미얀마의 현 이슈에 대한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고, 이하는 각 단체 대표들이 이야기 한 이야기를 종합한 내용이다.

“산주에 있는 많은 소수민족 중 산족은 몇 십 년 전부터 주도적으로 분리 독립운동을 요구하여 왔고, 다른 소수 민족들도 이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많이 사라졌고, 소수민족들은 각자 자신의 소수민족 중심의 지방자치와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토지 몰수 문제인데, 미얀마에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지하자원이 매설된 지역, 경제특별구역법 등에 따라 개발구역과 주변 토지를 몰수한 후 그 소유권을 외국 회사에 넘기고 있다. 이에 토지 몰수에 반대하는 토착민, 농민들이 주도하여 반대운동이 일어났고, 여론을 인식한 정부는 토지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심사 후 몰수한 토지를 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몰수된 토지를 반환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산주의 경우 남부 산주에서만 300,000이까(단위)를 몰수당하였으나 이 중 산주 전체에 총 9,000이까의 땅이 반환되었을 뿐이다.

여성운동이 최근 미얀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미얀마 여성들은 '여성인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생소하게 생각한다. 현 정부도 여성인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 여성운동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아 활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가족폭력과 인신매매인데, 인신매매의 대다수는 아이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신매매가 된 아이들의 상당수는 남쪽의 태국, 북쪽의 중국으로 보내진다. 인신매매를 당한 아이들은 성매매, 구걸, 강제노동, 강제결혼 등을 하며 노예처럼 살아간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미얀마 정부 및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각 단체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하여 개발 사업을 조사·감시하는 쉐리 단체는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일반 지역주민들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로 치부하여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

토지를 몰수당한 농민들을 교육·지원하는 삐오 단체는 ‘삐뚜쨌’<sup>5)</sup> 라는 민병대의 존재를 꼽았다. ‘삐뚜쨌’는 2000년 전까지 삐오 지역의 자치를 주장했던 무장 세력이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삐오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 일하던 민병대가 정부와의 모종의 거래에 의하여 이제는 시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존재로 탈바꿈하였다. 처음 시작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정부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중앙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삐뚜쨌’가 하는 일은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과 다르지 않고, 현재 삐오 단체가 하는 일에도 간섭을 하고 있다. 삐오 단체는 출판사업도 함께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삐뚜쨌’의 횡포를 겪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보복이 두려워 그와 관련된 언급, 인터뷰 등을 피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더불어 최근 미얀마 산 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레 호수(Inle lake)의 수질오염문제이다.

“외국 자본이 유입되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호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 인레 호수 수질과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 뒤늦게 나무를 심는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오염이 된 수질은 정화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인레 호수는 본래 배를 타고 이동을 하지만, 여름에는 걸어서 강을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호수를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의 생계와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레 호수가 오염된다면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다. 정부는 나무를 심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호수에 물이 유입되는 등 호수를 둘러싼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각 단체 대표들이 현 미얀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언급해주어 지금까지 간담회 중 가장 많은 주제를 다룬 만남이었다.

## 라. MLN 워크숍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 인권팀은 2014. 7. 26. 양곤에서 MLN과 ‘민주주의, 인권, 사회정의’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미얀마 2008 헌법 개정이 주된 논의였다면 헌법 개정과 불가분의 관계인 현 미얀마 정세와 민주화운동 방향에 대하여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Democracy in Myanmar & Methodology for Amendment of 2008 Constitution’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우 떼인 탄 우(U Thein Than Oo)의 발제내용이다.

5) ‘삐뚜쨌’는 아직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세력으로 현지 청년 네트워크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중앙정부군 녹색 옷을 입고 있는데 반해 이들은 녹색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군대와 다른 조직으로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었다. 삐뚜쨌는 일정한 월급이 없는 조직인데, 지금까지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에 반하는 시민을 억압하는 등의 태도로 보아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에 산재하는 정치적·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으나 이 중 소수민족 문제가 가장 문제이다. 미얀마가 해방된 이후 소수민족 무장 세력에 의한 내전은 계속되었는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1947년, 1974년, 2008년 3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 자치권에 대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권을 요구하는 소수민족 무장 세력과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한 내전이 계속되었고, 1988년 소수민족의 힘까지 함께 모아 투쟁을 한 8888혁명이 없었다면 현재 그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어졌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더불어 현재 미얀마 정세를 설명하자면 군부독재체제 하에서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특히 군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탄압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수민족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입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모든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법률의 규정과 상관없이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미얀마 법률상 처벌 규정이 없는 1인시위의 경우에도 모두 체포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정이다. 언론은 2-3년 전에 비하면 비교적 자유로워졌지만, 아직 신문, 잡지 기사들로 인해 기자들이 체포되고 있고, 10년형까지 선고받은 기자도 있다.”

Social Justice in Myanmar & Consequences if Failed to amend 2008 Constitution’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MLN 대표 우 쟈 민(U Kyee Myint)도 2008 헌법 개정이 실패할 경우 앞으로 문제를 현 정세에 비추어 설명하였다.

“현재 미얀마는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땅값이 갑자기 치솟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복지정책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 치료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픔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헌법이 개정에 실패하고 현 군부독재가 이어진다면 노동문제와 부정부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미얀마의 노동자들은 현재에도 노동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유입되는 자본을 거두어들이기 바쁜 현 정권은 이러한 시민들의 고통에 대한 제도 개선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미얀마에도 노동법이 존재하지만 실상 노동자를 규제 하고 탄압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 채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 현 미얀마의 노동자들은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입장이고, 이는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금 미얀마의 제도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조세제도이다. 지금 미얀마의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자본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조세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였을 때 시민들의 정권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는 52년

간 군부독재를 경험하고 있고, 현 대통령인 떼인 세인도 군부 출신으로 13년째 집권을 하고 있어 현 정부로부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군부는 자신들의 부를 채우기에 여념이 없고 그 결과 미얀마는 세계 빈국 중 하나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라며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2008 미얀마 헌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여러 사람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시간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노동문제, 소수민족 문제, 토지 몰수 문제가 현재 미얀마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로 언급되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외국기업의 투자, 자본의 유입은 노동문제, 토지 몰수 등 제2, 제3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워크숍 참석자 중 한명은 미얀마에 투자를 하는 것은 현 군부정권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이며, 이를 토대로 군부는 그들의 세력을 견고히 하고 있다며 미얀마에 투자하고픈 사람들은 미얀마의 경제, 정치, 역사 상황을 잘 알아보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를 해주길 당부하였다.

## IV. 소수민족 및 종교갈등 이슈

### 1. 사전조사 내용

#### 가. 소수민족

아시아인권팀은 소수민족과의 만남을 진행하기 위하여 미얀마의 대표적인 소수민족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중 간담회에는 몬족, 조미족, 샨족, 라카인족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얀마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담화를 나누었다. 따라서 사전조사를 한 소수민족 중 샨족과 라카인족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최근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힝야족에 대한 조사내용을 함께 후술한다.

미얀마는 13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남아시아에서도 소수민족이 많은 나라로 꼽힌다<sup>6)</sup>. 52,800,000명 전체 인구 중 68%를 구성하는 버마(Burma)족은 주로 미얀마 중남부의 평야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소수민족은 대체로 산악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소수민족으로는 샨(Shan)족(9%), 카인(Kayin)족(7%), 라카인(Rakhine)족(3.5%), 몬(Mon)족(2%), 카친(Kachin)족(1.5%), 친(Chin)족(1%), 카야(Kayah)족(0.75%) 등이 있다. 소수민족들은 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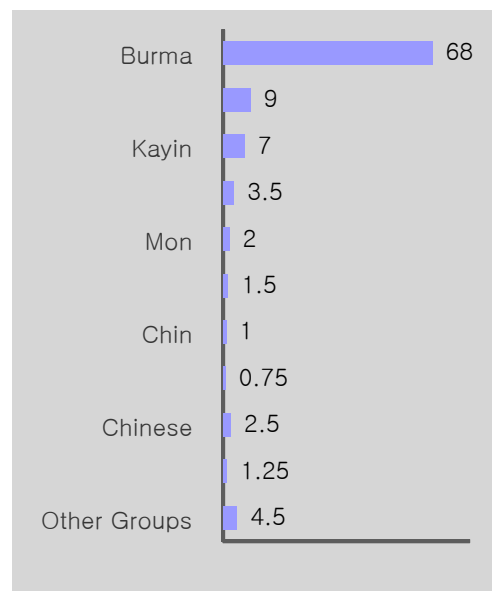
6) 출처 : 옥스팜 호주 지부 홈페이지(<https://oiyp.oxfam.org.au/>)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왔으며,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는 민족들도 많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얀마 독립과 관련하여 소수민족의 분리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1947. 2. 아웅 산과 샨족, 카친족, 친족의 지도자는 ‘소수민족이 미얀마와 함께 독립 국가를 구성하되 소수민족에게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팡롱협약을 체결하며 소수민족 문제는 일단락 났다. 그러나 이후 팡롱협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을 위한 내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인 샨(Shan)족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얀마 4대 불교 민족 중 하나로서 샨주를 중심으로 만달레이, 카친주, 카인주 및 중국, 라오스, 태국 등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1947년 제헌헌법에 따르면 샨주와 카야주는 10년 뒤 국민투표를 통해 연방에서 분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1961년 미얀마 연방의 초대 대통령인 Sao Shwe Thaik은 헌법상 독립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보다 광범위한 자치권이 인정되는 연방체제를 제안하며 샨족, 버마족, 카인족을 순화하였다. 그러나 카친족 방문을 앞두고 1962년 네 윈의 쿠데타가 발발하여 자치권 확장 논의는 중단되었고 미얀마에 대한 샨족의 무장투쟁이 확산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군사정권은 17개 반군과 휴전하였지만 모든 반군이 무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무장 반군은 United Wa State Army(UWSA)로서,



미얀마의 민족구성



2008년 헌법 하에서 UWSA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일부 지역의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무장투쟁 과정에서 수많은 산족이 생활 터전을 잃고 태국으로 유입되었는데, 이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산족에 대한 착취는 무장투쟁과 함께 산족의 태국 이주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수많은 산족 청년들이 미얀마 군에 징집되어 기한 없이 복무하거나, 저임금에 식량마저 부족한 상태로 도로 공사에 장기간 동원되고 있다. 산족 청년들은 가혹한 현실을 피해 대거 태국으로 이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태국에서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미얀마 국내외에서 산족 분리 독립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은 계기로 정부가 산족에 대한 탄압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라카인족(Rakain)은 주로 미얀마 서남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민족으로서 라카인 산맥의 영향으로 미얀마 중심부와 분리된 채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50년대 이후 라카인족 분리 독립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네 윈은 쿠데타 이후 라카인족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1974년 헌법을 통해 아라칸구를 라카인주로 승격시켰다. 라카인주에서는 미얀마 독립 직후부터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종교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제적인 구호단체의 활동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최근 대우인터네셔널이 인도의 기업과 함께 라카인주 부근의 해상광구에서 천연가스를 개발 중에 있는데,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구역의 토지를 몰수하거나 거주민들을 강제이전 시키는 등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 사이 갈등이 우려된다.

라카인족과 함께 라카인주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에는 로힝야족(Rohingya)이 포함된다. 최근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로힝야족의 문제는 중요한 인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에 미얀마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 토지 소유가 금지되고 혼인 및 여행의 자유를 향유하지도 못한다. 2013. 5.에는 라카인 주정부가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갈등을 막겠다며 로힝야족 인구 비율이 높은 2개 마을에 일부다처제 금지 및 2명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로힝야족에 대하여 물리적인 폭력이 가하여진다는 점이다. 불교도들이 마을을 습격하여 로힝야족을 강간, 살해하고 로힝야족의 가옥에 방화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고, 2012년에는 이슬람교도 로힝야족과 불교도 사이에 여러 차례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200여명이 숨지고 140,000여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의 중심에는 불교도들이 있는데, 승려들이 로힝야족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데, 특히 아신 위라투(Ashin Wirathu)라는 승려가 이슬람에

---

7) 아라칸족이라 일컫기도 한다.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반이슬람 폭동을 주도하고 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독립 당시의 국경도 문제였다. 당시 구획된 국경에 따라 방글라데시에 친화적인 로힝야족이 미얀마의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국민들의 반감을 달래기 위해 이슬람을 희생양 삼아 탄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로힝야족이 대거 방글라데시로 유입되었다. 로힝야족은 1962년, 1978년, 1991년 세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로 집단 이주하였으나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땅과 일자리가 부족한 방글라데시인들은 로힝야족을 적대시하였고, 로힝야족의 처지는 미얀마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참담한 상황으로 인하여 로힝야족은 이슬람 테러단체에 쉽게 포섭되기도 한다. 알카에다 역시 테러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로힝야족에 관심을 가졌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비밀기지에서 로힝야족 청년들이 군사훈련을 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 나. 미얀마 무슬림과 불교도 간의 갈등

### (1) 무슬림과 불교도 간의 갈등 역사

미얀마의 무슬림들은 대개 인도, 중국, 그리고 방글라데시계 민족들로서 미얀마 총인구의 약 4% 정도를 이루고 있다. 무슬림들은 영국의 식민지배 시절 인도의 아대륙에서 고용노동자 신분으로 미얀마에 대거 이동하였다. 이에 미얀마는 이들을 단순 이민자로 취급해왔으며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에서 무슬림과 불교도 간의 충돌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특히 라카인주 사건으로 인해 미얀마 내 종파 간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다. 대다수의 지역민이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종교적 파벌은 국민통합을 저해시키는 것은 물론 막 짊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운,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사회의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종교적 과격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불과 몇 달 뒤 일어날 메이크틸라 사태를 막지는 못했으며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 또한 취하지 않았다.

**2012년 6월 라카인주** - 2012년, 많은 로힝야 부족들이 살고 있는 라카인주에서 일련의 대규모 폭동이 있었으며, ‘라카인 사태’라 불린다. 그 해 5월 28일 한 무리의 무슬림 남자들이 라카인주 불교도 여성을 강간, 살해함으로써 사태는 야기되었다. 그 무슬림 범인들이 로힝야 사람들로 알려지면서 로힝야족과 불교도간의 갈등은 일파만파로 커졌고, 이 사건은 점차 미얀마 전역의 무슬림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군부는 라카인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배치해 행정예 참여토록 했고, 주민들에게는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공식적으로 9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추방당했고, 2,528여 가구가 불에 탔으며, 8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많은 로힝야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말레이시아나 방글라데시 등지로 피난

했으나,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은 대부분 미얀마로 되돌려 보내졌다.

**2013년 3월 메이크틸라** - 미얀마 중부의 메이크틸라에서의 금은방에서의 말다툼이 무슬림과 불교도 간의 폭동을 야기하였다. 40여명 이상의 사망자와 관련 지역 일대의 거주자들이 정착지를 잃었을 정도로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 이번 방문의 조사 대상이었는데, 아래에서 별도로 상술한다.

**2013년 8월 칸발루** - 폭도들이 무슬림들의 주거지와 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을 불태웠다. 이들은 불교도 여성을 강간한 혐의가 있는 무슬림 남성의 인도를 경찰이 거부하자, 이와 같은 폭동이 일어났다.

**2014년 1년 라카인주** - 40여명의 로힝야 남성, 여성 및 어린이들이 폭도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는 로힝야 사람들이 라카인주 경찰관 한 명을 죽였다는 혐의가 알려진 직후 일어난 사태라고 UN이 전하고 있다.

**2014년 6월 만달레이** -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만달레이에서 2명(각 무슬림, 불교도)이 죽고, 14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불교도들에 의해 무슬림 사원이 습격당하고 무슬림이 운영하는 가게에 약탈과 방화가 자행되었다. 이 사태는 무슬림이 불교도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국영방송의 보도가 원인이 되었다고 전한다.

## (2) 메이크틸라 사태

2013년 3월 미얀마 중부의 만달레이 지방 메이크틸라에서는 불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 간의 대규모 충돌로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130km 떨어진 메이크틸라에서 일어난 이 충돌은 불교도 금은방 직원들과 한 무슬림 부부간의 단순한 말싸움에서 비롯되었다. 핀의 금장으로 시작된 이 단순한 말싸움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에 끼어들며 급속히 무슬림과 불교도 간의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폭동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그 일대는 불바다가 되었고 건물들과 사원들은 파괴되었으며 거리에는 불에 탄 시체들이 나뒹굴었다. 정부가 그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태를 수습할 때까지 불교승려들이 포함된 폭도들은 사흘 동안 메이크틸라를 휩쓸었고 이로 인해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불교도 무슬림을 막론하고 마을에 남은 이들은 언제 당할지 모르는 공격에 대한 두려움에 그들의 터전을 떠나고 있다.

폐인 세인 대통령과 야당대표 아웅산 수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메이크틸라에서의 법치 확립과 추방된 사람들의 신속한 복귀를 약속하며 미얀마 내 집단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여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계엄령과 야간 통행금지령 이후 메이크틸라 내의 상황은 누그러들었지만 폭력사태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졌다. 전 해에 있었던 라카인주 사태 이후로 미얀마 내 최악의 집단 폭력사태로 기록된 메이크틸라 사태는 불교도와 이슬람

교도간의 심각한 갈등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얀마의 무슬림들과 국제사회는 미얀마 경찰이 메이크틸라 폭력사태를 방관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유튜브 등에 공개된 동영상들에 의하면, 미얀마 경찰은 산 채로 불 부쳐진 무슬림들을 보고도 가만히 서 있는 등 다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폭도들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고 한다. NLD대표 아웅산 수치는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 필요하다면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사태를 진정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떼인 세인 대통령은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을 정당하게 처벌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정부가 다른 일들을 덮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메이크틸라 주민들과 미얀마인들은 이러한 수법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라며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메이크틸라 사태 당시 테러리스트로 보이는 사람들이 같은 팔찌를 차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봤다는 다수의 증언들이 의문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총 인구 80,000명 중 30,000여명이 무슬림인 것으로 알려진 메이크틸라는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충돌을 찾아볼 수 없던 평화로운 곳이었다. 미얀마인들은 메이크틸라 사태를 후술하는 ‘라카인 사태’의 후폭풍으로 보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 내 집단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 정부에게 인권침해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2. 현지 방문

### 가. 소수민족 지도자 간담회

아시아인권팀은 2014. 7. 27. 양곤에서 라카인족 대표 우 카우 민(U Kyaw Myint), 튠 라잉(Tun Hlaing) 및 조미족, 산족, 문족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먼저 각 소수민족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언급하며 간담회를 시작하였고, 이하는 각 민족 대표의 발언이다.

“라카인족은 경제발전예 따른 인권침해와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의 무력충돌(국제사회에 로힝아족 문제로 알려진 내용)을 직면하고 있다. 미얀마 서쪽에 있는 라카인주는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국경지대에 있는데, 미얀마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지만 동시에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떼인 세인 대통령은 군부독재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라카인 지역에서 나오는 석유를 중국으로 보내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문제는 산업개발에 필요한 도로, 항만 등 기간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강제이주 시키거나 토지를 몰수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연해에서 개발지역까지 철로를 건설하여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개발만을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지역사회에 큰 해를 미치고 있는데, 중국회사가 들어오지만 지역민이 아닌 중국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동시에 라카인주에 다수의 중국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오지 않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한국의 대우인터네셔널이 라카인주에 진출하여 개발을 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산족 대표 또한 이 같이 지하자원 수출하기 위하여 지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비단 라카인주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보탰다.

이어서 현재 국제적으로 알려진 로힝야족 문제에 대하여 라카인주 대표는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소수민족으로 알려진 로힝야족은 에 대하여 라카인주 대표들은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오는 사람, 방글라데시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엄밀한 의미에서 미얀마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역사적으로 라카인족은 같은 지역에 있는 로힝야족과 지금까지도 함께 교류하며 살고 있지만, 종교적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이다. 무슬림은 부인이 3-4인인데 이런 문화를 토대로 빠르게 인구가 늘어났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라카인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이 ‘로힝야’ 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당시 군부독재 타도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군부독재 타도를 위해 싸울 동지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후 로힝야족은 라카인주를 무슬림 지역으로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로힝야족 자치정부는 RSO(Rohingya Solidarity Organisation)라는 군대를 만들어 방글라데시에 주둔하며 라카인족을 공격했다.

이후에 로힝야족이라고 자신들을 일컫는 세력과 라카인족 사이 갈등이 생겨났고, 이는 UN이 주둔하며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불교도의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며 더 문제가 되었다. 라카인 지역으로 넘어오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주변 지역 무슬림들이 본인을 ‘로힝야족’이라고 일컬으며 분쟁에 가담하며 본인들이 이 지역의 거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에 발생한 총돌의 경우, 무슬림이 불교도 여성을 강간하고 신체를 난자한 후 사진을 찍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참다 못한 불교도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총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라카인족을 포함한 미얀마 시민들은 국제 시민사회가 ‘로힝야’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로힝야족을 구성하는 이들은 원래 방글라데시 민족이기 때문에 마치 미얀마 소수민족인 것처럼 그 집단을 부르는 ‘로힝야’ 라는 단어는 옳지 않고,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UN에 요청한 적도 있으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로힝야는 없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이 조직을 인정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인들이 라카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정부는 ‘Temporary White Card’를 발급하고 있는데, Temporary White Card를 소지한 자는 시민권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할 권리와 선거할 권리 등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외관상 방글라데시인이 라카인 지역에 유입되어 거주를 하는 것과 지역민들과 다르지 않고, 이에 그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라카인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당에 지속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정부도 설불리 이들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칠 수 없다.”

총돌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라카인주 대표의 증언은 국제사회에 알려진 로힝야족 문제와 관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차후 깊이 있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

몬족은 현재 군부독재 하에 몬족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실태를 고집었다.

“몬족 여성들은 매일 심한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몬족 지역에서 미얀마 군인들에 의해서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수민족의 문제라기 보다 군인의 권한이 막강한 정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군인 중 상대적으로 버마족의 비율이 높은 현 상황에서 지역민들은 이를 소수민족이 겪는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이처럼 군인이 주도하거나,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조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몬족에 대한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 소수민족은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조미족은 현 정부가 1개의 교과서로 모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각 소수민족만의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밋는 것은 대학 입학률 좌우하는 고등학교 마지막 시험문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게 출제한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다른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의도야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여 소수민족 출신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라카인족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현재 미얀마의 초등교육은 무상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많다. 그 이유는 학교에 가면 등록금, 교과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많은 금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어 그 언어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만 미얀마어로 된 1가지 교과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언어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다.”

산족 역시 소수민족 고유의 언어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교육

은 정부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명백한데 소수민족 아이들은 집에서 미얀마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얀마어도 된 교과서 교육에 흥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 주에 매장된 지하자원에 대한 중앙정보의 통제 수준에 대하여 조미족은 지하자원은 산주와 카친주에 많이 있는데 헌법에 미얀마 영토에 지하자원의 소유는 국가라고 규정되어 있어 모든 통제가 정당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질적으로 각 지역민들에게 지하자원으로 인해 얻어진 혜택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하자원에 대한 소유 혹은 지분을 일정부분 인정받아야 하나, 현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라카인족도 같은 맥락에서 주마다 지하자원이 있으나, 이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소수민족들이 헌법 개정을 원하는 이유 중 하나에 자원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현 NLD의 활동에 대하여 소수민족 대표로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라카인족은 여당이 소수민족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출구 자체를 닫고 있는 반면 NLD는 지난 20년간 CRPP(Committee Representing People Parliament)라는 기구를 운영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는 점에서 낫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NLD마저 소수민족 자치권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라카인족은 NLD를 지지하고 있는데, 정권을 교체하려는 NLD와 소수민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소수민족 사이 그 동기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산족도 이와 같은 논지로 지금 미얀마에는 많은 정당들이 있고, 현존하는 정당 중 그나마 대화할 수 있는 정당이 NLD이지만 그들이 소수민족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광릉협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 소수민족 대표들은 협약의 내용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소수민족이 주장하는 자치권은 광릉협약의 내용에 따른 것이나 그러나 정부 측 관계자 중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토지 몰수, 불평등한 교육환경, 극심한 빈곤 상황을 방관하는 현 체제는 무장투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소수민족은 무장군대를 조직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고, 협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한 내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나. 메이크틸라 피해자 면담

아시아인권팀은 2014. 7. 29. 메이크틸라를 방문하여 메이크틸라 사태에 대한 전박적인 이해를 위하여 먼저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활동가로부터 사건의 개요를 듣고, 메이크틸라 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메이크틸라의 무슬림사회를 대표하는 000과 메이크틸라 사태로 인해 가족을 잃는 등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경험을 들었다.

우 떼인 판 우(U Thein Than Oo) 변호사는 MLN 소속으로 메이크틸라 사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들을 대리 혹은 변호하고 있다. 그는 메이크틸라 사태의 사상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많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언론에 보도된 40여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400여명에 달하며, 고아원에서만 16세 내지 18세의 아이들이 28명이나 죽었다고 한다.

또한 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종교문제가 아닌 다른 사유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정부가 토지 몰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아웅산 수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유포하려는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중국기업들을 진출시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주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 없는 토지 몰수에 항의하며 시위와 농성을 하게 되었으며, 2012년 12월경에는 급기야 경찰들이 주민들의 시위를 강제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승려들을 포함한 100여명 이상의 군중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주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더욱 고조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더욱 커져 갔고, 정부는 중국 혹은 정부를 향해 있던 주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자 종교문제를 이용하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또한 아웅산 수치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인권적인 접근을 할 경우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편을 드는 것으로 인식시켜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무슬림국가가 될 것이라는 악의적인 여론까지 퍼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2012년 라카인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즉, 강간 사건을 국영신문에서 무슬림이 불교도를 강간한 것으로 보도하였고, 대통령 비서실 소속 근무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유포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야당 지도자들은 조만간 또 다른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기도 하였다. 2013. 3. 메이크틸라 사태 발생 직전 969 단체의 승려 위라뚜가 메이크틸라에 와서 이슬람교에 반대하는 대규모 법회를 하였고, 법회 이후 969 단체가 무슬림 상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이슬람사원을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가던 불교 승려를 이슬람교도 4명이 칼로 찔러 살해하

는 사건 또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교도인 일반 시민들까지 이 사태에 참여하게 되었고, 심지어 메이크틸라 주변 지역 주민들도 소요사태를 이용한 절도를 위해 메이크틸라로 모여들어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갔다. 그러나 메이크틸라 사태에 대하여 승려를 살해한 자들이 메이크틸라 주민이 아니라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당시에는 경찰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혹은 의도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에서든 테러를 당할 수 있었다. 활동가 민꼬나잉이 메이크틸라를 방문하였으나, 살해위협 때문에 서둘러 몸을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메이크틸라 지역의 변호사들은 모두 신변에 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승려 살해 사건 재판에서 무슬림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를 거부하였다. 물론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4명과 MLN 소속 변호사 1명이 함께 변호를 맡고 있다.

사태 이후 부유한 무슬림들은 대도시로 이전을 할 수 있었으나, 가난한 무슬림 약 4,000여명은 구호수용소(salvation camp)에 남아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구호수용소에 있는 자들은 대부분이 무슬림이며, 사태 이후 현재까지 이들은 수용소를 떠날 수 없는데, 정부는 이 기회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계속적·집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이다. 수백 명이 죽은 사건이지만, 승려 사망건과 일반인이 사망한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은 민족주의 혹은 종교 갈등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고 하면서, 우선 이를 주도하였던 969 단체의 지도자인 승려는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무슬림이었던 계부의 학대 때문에 이슬람교에 반발하였던 측면이 있으며, 그의 추종자들 역시 지적수준이 낮은 일반인들일뿐이라는 점, 승려 살해 사건의 용의자들은 메이크틸라 거주자들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태 당시 100~200여명이 단체티를 입고 무기를 소지한 채 한꺼번에 소집하여 집단행동을 하였던 점, 경찰들이 폭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무슬림에게 불리하게 대응하였던 점, 또한 이러한 사태를 중국기업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돌리려고 한다거나, 아웅산 수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선동의 목적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정부가 이 사태에 개입하였을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그는 2014년 6월에 있었던 만달레이 사태도 그 사태가 있기 직전 도시 전체가 정전사태가 있었던 정황으로 보아 정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와 동행한 해리(Harry) 간사 또한 위 변호사의 이야기에 보태어, 일련의 사태들에 공통점

을 첫째, 사태의 발생 및 확산에 지역사람 이외에 외부인들이 유입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사태 발생 지역이 정부와 중국기업에 불만, 갈등이 있는 지역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유에 대하여, 먼저 교육이 부족해서 즉,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군부독재 아래 장기간 동안 답답함과 불만이 쌓였는데, 이를 이런 계기에 표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따라서 이는 자생적 종교 갈등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조작된 갈등 혹은 폭동이라고 하였다.

이후 희생자 가족들과의 면담이 있었다. 직접 이 사태를 겪은 자들의 증언이므로, 가급적이면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두기로 한다. 사우민시우에인은 메이크틸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지역에서 종교 간의 화해 평화 운동을 해왔으며, 종교연합의 부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그는 사태 당시 상황을 이하와 같이 증언하였다.

“메이크틸라에는 몇 개의 동네가 있지만 이 중 사태 당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고 문제가 일어난 곳은 3곳이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여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왔을 때 불교도였던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 동네에 있는 3개의 사원도 조금 부서진 이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불교도 이웃들이 우리를 지켜준 것입니다.

메이크틸라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인데,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금은방에서 일어난 일을 지인이 전화로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 경찰서로 가는데, 경찰서로 가는 일에 시장, 문제가 있었던 가게도 아무런 일도 없었고, 경찰서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문제가 마무리 되었다고 이야기했고, 그때까지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가게 앞으로 시위를 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모여 50명 정도 됐고,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는 시민운동가, 경찰 등이 있었는데 우리는 매우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건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없었습니다.

사태가 발생하기 몇 주 전부터 라카인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일이 있었고, 한 달 전에는 동네에 있는 민간운영 주유소 중에서 이슬람 주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시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유소를 없애달라는 민원 등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주가 되는 주유소 폐지 시위에 시민들도 참석하였는데, 주유소 주변에 불법 기름을 파는 사람과 또 시위에 참석해서 3,000짖을 받기 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며,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촉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터키 외무부장관이 버마를 방문해서 네피도에서 떼인세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 지역에 기념관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지역에서는 이

슬람세력이 사원을 새로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나갔고, 실제 무슬림은 그런 일과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터키와 함께 기념관을 만든 것은 자신들의 시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지역 역사를 잘 모른 채 기념관 만든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이슬람이 새로운 사원을 만들고 있다고 받아들였고, 승려 위아뚜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메이크틸라 사건의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9시 30분에 문제가 되었고, 11시부터 시위대가 경찰서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군집을 하였습니다. 경찰서 안에 용의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문제가 없다 있다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끈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가게 앞에 모여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경찰들은 그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이 모습으로 찍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찍지 말라고 저지했고 저는 상황이 좋지 않아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명은 그 모습을 계속해서 찍었고, 결국 집단구타를 당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 가게는 3층짜리이고, 그 주인은 불교도인데 그 중 임차인 일부만 이슬람사람입니다. 만약 지역의 불교도인이 무슬림을 공격할 목적이었다면 이 건물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공격으로 이 건물은 부서졌고, 이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외부인의 소행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 부부가 죽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둘은 당시 병원에 있었습니다<sup>8)</sup>. 사람들은 4시 정도에 그만두지 않고 시장 쪽에 있는 이슬람 사원으로 걸어 들어가 사원을 공격했습니다. 가게에서 사원은 15분 거리지만, 경찰서에서 사원은 5분 거리에 불과합니다. 사원 근처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사람들이 몰려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제일 심각했던 지역은 승려 한분이 살인을 당한 동네였는데, 그 곳의 상황도 정말 안 좋았습니다. 결국 그 밤 내내 무슬림 교도들이 살던 동네는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28명의 아이들이 지내는 고아원이 불에 타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 날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도망가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3일 후 정부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이 지역은 무질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분은 마떼인페인모이고, 야묘아웃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분의 남편은 그날 아침에 살해당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남편이 살해를 당하였고, 용의자 얼굴을 알고 있어 고소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용의자는 이 지역 사람이었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 가끔 이 지역에 오는데 지역에 온 것을 보고 신고를 해도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땅민씨는 난도고우에 살고 있으며, 20일 아침에 아들, 남편, 손자 2명이 살해당했습니다.

8) 누군가 상황을 험악하게 만들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 마킨묘루윈씨 남편은 승려 사망사건의 피고인으로 14년 형을 받았습니다. 마떼인떼인모, 도 땅민은 지금 난민촌(구호수용소)에 살고 있습니다. 도땅민씨 아들, 남편, 손자 2명은 여러 명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 1명만이 잡힌 상태이며 그 1명도 살인죄가 아닌 다른 죄목으로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7년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형벌에 차별이 있는데, 불교도의 경우 4명이 살인죄로 7년이 선고되었고, 스님 살인사건에서는 무슬림은 14년 형이 선고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무슬림 2명이 불교도 1명을 죽였는데 1명은 14년, 다른 한명은 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불교 사원에 대한 방화죄로 무슬림은 14년형, 이슬람 사원 방화죄로 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메이크틸라 사건 이후에 무슬림 3명(14, 17, 20세)아이가 불교도 1명을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7세, 20세는 14년, 14세는 소년원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아래에서는 이를 그대로 옮겨둔다.  
사태 당시 남편을 잃은 마떼인떼인모의 증언이다.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위협이 있었는지.  
“없었다.”

난민캠프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의식주 문제는 어떤지.

“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남편이 있는 경우에도 집이 없었는데, 남편이 없는 지금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캠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유롭게지만 6시 이전에는 들어와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다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체육관 안 빈 공간에서 7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근처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는 수준인데, 쌀 콩, 기름 등은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4개월이 지났는데, 처음 8개월은 쌀 기름, 고기, 계란, 생선 등을 지원했지만, 지금은 고기, 계란 생선 등은 지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메이크틸라 사태 당시 일어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14년형을 선고받은 마킨묘루윈(40세)의 증언이다.

“남편이름은 묘뉴운 41세입니다. 아이는 2명 있습니다.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고 당시 남편은 그 주변도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골에 장사를 하러가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날 남편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여 그 곳에 가지 않고 그날 저녁 8시에 집에 왔습니다. 남편의 형제는 5명인데, 남편이 첫째입니다. 지금 추측으로는 삼형제 중 셋째가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남편과 둘째가 용의자로 잡혀갔습니다. 남편

이 오토바이 장사를 하러 갔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교도인 오토바이 장사꾼이 증언을 해주었고, 토마토 장사를 하는 둘째 아주버니도 주변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피고인 7명 중 남편과 남편 동생처럼 대부분은 사고 현장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 측에서 제시하는 증인이 39명입니다. 그 중 20명은 가해자를 잘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경찰 측의 압박을 받고 본 것 같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14년, 남편 동생은 16년형을 받은 채 범인들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항소심진행증인지.

“소송계속 중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방법원(우리나라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별로 2명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각 불교도로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도 사건의 진행이 희망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메이크틸라 사태로 20일 아침 아들, 남편, 손자 2명이 살해당한 도땅민의 증언이다.

남성무슬림들에 대해서만 살인이 있었던 것인지.

“다 같이 맞았으나,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있어 여자는 먼저 지나가라고 하여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남자들은 빠져나오지 못해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가족은 무서워서 숨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경찰서로 데려다 준다고 했고, 따라가 보니 우리를 줄에 묶고 때렸습니다. 제발 여자는 살려달라고 했고, 나중에 남편, 손자2명과 아들은 맞아 죽어 불에 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제적인 지원은 어떤지.

“세이프더칠드런이 청소년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UNHCR사무실은 없습니다.”

현재 난민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정도 되는지.

“난민촌은 6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는 무슬림, 3개는 불교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총 4,50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 중 무슬림은 3,500명, 불교도는 1,000명 정도 입니다. 공식적으로 난민촌은 6개이고 비공식적인 난민촌은 여러 개입니다. 비공식적인 난민촌이란 무슬림이 사는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살고, 사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000명 정도 입니다. 지금 난민촌에서 살고 있는 2명은 비공식적 난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물 안에서 40%, 밖에서 60% 정도 살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정확한 숫자와 그 중 무슬림과 불교도 비율은 어느 정도 인지.

“사망자는 90명 정도일 것이나, 정부가 발표한 것은 44명에 불과합니다. 메이크틸라 인구 30만 명 중 3만명이 무슬림이고, 3만명 중에서도 여유가 있는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메이크틸라 시내 사람 중 불교도, 무슬림 모두 가난합니다.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상황이고, 모두 삶이 어렵기 때문에 금전적인 유혹에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 V. 기타

### 1. 미얀마 해고노동자 : 철수하는 한국계 기업 피해 노동자 상담

한국인 사장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해고노동자와의 만남은 사전에 계획된 일정은 아니었다<sup>9)</sup>. 한국기업의 해외 투자와 진출이 늘어나면서 현지에서의 노동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기업이 중국, 동남아 국가 등지에 투자를 하는 목적은 보다 값싼 노동력의 활용을 통한 이윤 창출에 있을 것이다. 기업은 목적 달성을 위해 노동자 집단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 관련법과 제도가 허술한 점을 적극 활용할 것이므로, 이는 불가피하게 현지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침해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얀마 방문이 있기 몇 달 전 캄보디아의 의류공단에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정부가 과잉진압하며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있었고, 이 사태에 한국기업이 관여하였다거나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어,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여겨졌다. 또한 미얀마 방문 직전에 국제민주연대로부터 이 사안에 대하여 내용을 전해 듣고 미얀마에서 정보를 얻을 것을 요청받은 바 있었으므로 노동자들 측의 요청에 의하여 면담이 이루어진 것은 방문팀에게는 행운이었다.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일정 및 주제와 달리 사전 준비는 없었으며, 회사 측을 인터뷰하거나 보다 깊이 있는 현장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바, 당일 있었던 근로자들 및 이들을 조력하는 활동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한다.

마스터스 스포츠의 미얀마 현지공장은 2013년 5월경부터 아웃도어 신발 등 의류를 생산했다. 여기서 생산된 아웃도어 의류에는 마스터스 스포츠가 아닌 유명아웃도어업체인 ‘코오롱스포츠’의 상표가 붙여졌다. 애초에 사장은 ‘김씨’였다고 하나, 2014년 4월 방씨(방인호)로 변경되었다. 2014년 6월 5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5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달 18일까지 쉬라고 통보했다. 이어 회사는 같은 달 19일 근로자들에게 또다시 25일까지 쉬라고 했고, 같은 달 26일 공장 문을 닫는다고 말하고는 다른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냈다. 회사는 7월 5일 6월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

9) 따라서 진술자들의 이해와 제한된 정보접근에 따른 인식의 한계, 법률의 무지 등으로 인해 아래의 내용은 세부적인 점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법률적 해석의 측면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다.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임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공장 문이 닫힌 채 회사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균 8만<sup>10)</sup> 정도라고 한다.

이후 일부 근로자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사는 총 830여명의 직원 중 생산직을 제외한 매니저, 통역사 등 사무직 58명에게는 6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회사는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생산제품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의 사업을 철수한다며 폐업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미얀마 정부(노동부)는 2명의 매니저들(각 한국인, 미얀마인)에게 폐업절차 관련 법위반을 이유로 7월 25일 공장 소재 법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이들은 불출석했다고 한다. 한국인 사장이 아닌 매니저들만 소환한 이유를 근로자들은 알지 못하였다. 아마도 형식적, 법적 사업주는 이들이 알고 있는 한국인 방사장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매니저들이 위 절차를 통한 처벌을 받더라도 이는 행정적 혹은 형사적 제재일 뿐,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고 했다. 근로자들은 임금 수준이 높은 사무직 58명에게 이미 임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공장(사장)의 자금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공장을 완전히 폐업시킨 것 같지 않으며, 방 사장이 미얀마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를 압박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미얀마에도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제기 등 사법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소제기 등 사법적인 절차를 꺼리는 이유는 첫째, 소제기 등에 비용이 많이 들고, 둘째, 법원의 판결 등을 받는데 지나치게 장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들은 한국 기업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한국정부나 대사관 등에 널리 알리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들을 찾았던 것이다. 방인호와 매니저의 연락처라고 받은 전화번호로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sup>11)</sup>. 한국의 변호사 단체가 마스터스 스포츠의 현지 근로자들과 면담한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신속히 해결하기를 바라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을 통보하려 했는데 아직 전달되지 못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혹은 투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노동인권 침해 문제 또한 점차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이 문제는 개별 사안 혹은 사업체에 대한 개별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실효성 또한 의문스럽다. 사후적인 해결을 넘어 사전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10) 한국 돈 8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1)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때 안내멘트가 한국어로 안내되는 것으로 보아 한국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보인다.

## 2. 따비에(Tha Byae) 단체 간담회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1988년 8888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얀마를 떠나 한국으로 망명을 하였다. 한국에서 그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활동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버마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힘쓰는 단체”인 따비에(Tha Byae)를 한국과 미얀마에 설립하였다. 2013년 군부정권의 탄압 위험에도 불구하고 20년간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보다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자 미얀마로 돌아간 그의 이름은 ‘마웅쩌’이다. 그는 민변 아시아인권팀의 이번 미얀마 방문에서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아시아인권팀은 2014. 7. 28. 양곤에 위치한 ‘따비에’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그곳의 활동가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따비에에는 더 많은 미얀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지에 도서관을 설립하고, 한국 동화책을 번역하여 소개하거나 컴퓨터 교육 및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 태국 등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연대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간담회 과정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노동 문제, 의무교육 문제 등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다.

군부정권의 탄압을 예상하고서도 어리석게도 고국으로 돌아가 우직하게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에 의해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낀다. **따비에 홈페이지(<http://thabyae.tistory.com/>)**를 방문하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따비에 방문은 2013년의 예비방문이나 이번 방문에서 만난 단체나 개인들이 주로 야당, 재야운동 성격의 단체, 인권운동 조직인데 비하여 교육운동이라는 특정한 부문 시민운동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향후 미얀마의 민주주의 운동과 교류를 함에 있어서 정치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단체들 외에 풀뿌리 시민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단체들과의 만남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를 만든 방문이었다고 평가된다. 창립 주요 구성원이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진 통역자 마웅쩌 라는 것이 방문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 조직을 두고 있어서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과의 연대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VI. 결론 - 민주주의를 위한 미얀마와 한국 민중의 연대를 위하여

현재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 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석이 현실의 정치세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즉 집권당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군부의 양보가 없이는 평화로운 개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권력구조에 직접 관련된 핵심적 쟁점은 아직 군부가 양보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NLD나 시민운동은 그 양보를 강제할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대중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유일하게 전국적 서명운동이다. 우리 일행이 양곤에서 목격한 개헌 요구 시위는 인상적이었으나 현 시점에서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NLD에서는 이와 함께 아웅산 수치가 제안하고 있는 4자 회담(대통령, 국회의장, 총사령관, 수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정치력이나 민중의 힘이 군부를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면 성사되기 어려운 일이다. 2008년 샤프란 혁명을 마지막으로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미얀마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를 통하여 분출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권력구조의 개편과 정권교체라는 큰 정치의 흐름과 별도로 개방에 따른 경제개발과 함께 각 계층별, 분야별로 권익투쟁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형국이다. 아직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자발적인 노동자 권익 찾기 싸움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노동운동의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토지몰수에 대한 저항은 주로 농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반군사독재투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투쟁, 시민의 권익실현과 인권옹호를 위한 투쟁, 소수민족의 평등한 연방국가 참여라는 3가지 싸움이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결집되어 총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군부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때 미얀마의 군부독재 청산과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민변은 미얀마의 변호사 단체, 정당, 시민단체, 소수민족 활동그룹 등과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확보하였고, 행사의 파트너였던 MLN과는 연대의식이 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네트워크를 비롯한 사회단체들, 그리고 야당은 한국의 방문단이 그들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 방문을 통해서 얻은 현실 인식과 연대감을 딛고 우리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방문 과정에서 미얀마 인권에 관심 있는 국내 단체들과 작은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경험이었다. 한국계 기업 노동자들 피해에 대한 상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힘이 되고자 하는 국내 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며, 나아가 공동행동을 통해 미얀마 민중의 민주주의 투쟁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시아인권팀을 중심으로 민변은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